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초반에 태어난 'G세대(글로벌세대)'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하고, 배낭여행과 여학연수로 다져진 국제 감각도 뛰어나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의 동계올림픽 스타들이 보여 주듯 재기발랄하면서도 구김살 없는 건강함을 보여준다. 그 중에는 이미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주류에 편입된 젊은이들도 있다. 반면, G세대의 몇 년 선배들이 되는 198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성장했다. 그들이 중학생 때 겪은 '외환위기'는 부모의 직업을 위기에 빠뜨렸고, 대학생 때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신들의 취업을 위기에 빠뜨렸다.

한때 'N세대(정보화 세대)'라고 불리며 게임과 인터넷, 핸드폰과 MP3의 주 구매자였던 그들은 이제 20대 비정규직의 평균급급을 뜻하는 '88만원 세대'가 되고 말았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그들의 가정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였으며, 경제 양극화는 취업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좌우하던 시절은 옛날 얘기가 됐다. 요즘은 졸업장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 '스펙'이 있어야 한다. '학점 4.0 이상, 토익 900점 이상, 어학연수...'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듯 취업자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스펙을 갖추려면 돈이 든다. '토익시험 응시료, 영어 학원이나 어학연수 수업료, 취업이 잘되는 학과의 복수전공을 위해 대학을 더 다니는 경우 지불해야 할 추가등록금...' 그 많은 돈을 누가 내는가? 부모들의 몫이 된다. 좋은 스펙 갖추도록 뒷받침할 경제력이 부모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비슷한 실력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의 성패가 갈린다.

게다가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서 많은 대졸자가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온다. 빚을 갚

'88만원세대'의 안타까운 몸부림

이드'하듯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스펙을 갖추려면 돈이 든다. '토익시험 응시료, 영어 학원이나 어학연수 수업료, 취업이 잘되는 학과의 복수전공을 위해 대학을 더 다니는 경우 지불해야 할 추가등록금...' 그 많은 돈을 누가 내는가? 부모들의 몫이 된다. 좋은 스펙 갖추도록 뒷받침할 경제력이 부모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비슷한 실력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의 성패가 갈린다.

게다가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서 많은 대졸자가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온다. 빚을 갚

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인턴이란 꼬리표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규직 취업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개인은 '업그레이드'되고 사회 전체는 '다운그레이드'됐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모든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 실업은 점점 심화되고 확대될 것이며, 고용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직장인의 퇴직이 빨라진 탓에 '아직 젊은',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실직 부모'들을 부양할 심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담과 힘겨운 경쟁체제에 자신을 잃은 젊은이 중 일부는 취업이나 승진에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다. 그 드러나는 취직에 시달리는 88세대의 애환을 황정음을 통해 보여준다. 얼마 전, '명문대'인 고려대 경영학과의 3학년 학생이었던(?) 김예슬양은 불안한 대학생활을 견디지 못해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하고 말았다. 그녀의 조리정연하면서도 비통함이 가득한 글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후벼 놓았다.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빛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취업'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 줄 자격증 꾸러미가 보인다. 우리들 20대는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작자세대'가 되어 부모 앞에 죄송하다.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무력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갈까? 세계를 향해 드높은 꿈을 펼치고 활활 날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신나게 그 꿈을 펼칠 기회를 되찾기는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장〉

속독한 경쟁에 시달리다 비좁은 사회 진출 관문에 끼인 우리의 청년들에게 탈출구는 없는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고 이처럼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서 안타깝게 허덕여야 하는가? 세계를 향해 드높은 꿈을 펼치고 활활 날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신나게 그 꿈을 펼칠 기회를 되찾기는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문경



늦은 결혼으로 인해 불임(난임) 환자의 절대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늦은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은 열기하거나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변화, 경제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도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시작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난임(불임)부부들에게 체외수정 시술 비의 일

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경미한 불임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라 될 수 있다.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기형 정자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인 적응증이다. 그 외 남편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어 정자의 운동성이 방해받는 경우, 자궁 경관의 선천적 이상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경관 점액의 양이나 질이 정자의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

자궁강내 인공수정

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내용이 확대, 소득이 전국가 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도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경우는 1회 150만원 한도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자궁강내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한도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확대됐다.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도록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난임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대상 시술이 된 자궁강내 인공수정은 배란이 되는 시기에 배우자의 정자를 채취, 특수배양액으로 처리해 활동성이 좋은 정자들을 선별한 후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 부인의 자궁강내로 정자를 직접 넣어주어 임신을 시도하는 불임치료 방법이다.

전반적인 임신율은 시험관 아기에 비해 낮은 편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 마취가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며, 매달 시술할 수 있다. 또 시술비용의 부

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경미한 불임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라 될 수 있다.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기형 정자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인 적응증이다. 그 외 남편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어 정자의 운동성이 방해받는 경우, 자궁 경관의 선천적 이상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경관 점액의 양이나 질이 정자의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

란기 자궁 경부 점액질 분비가 적어 성교 후 검사가 나쁠 때, 또는 원인불명의 불임인 경우에도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 반드시 한쪽 난관이라도 정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정자수가 있어야 시술이 가능하다.

배란이 잘 되는 경우에는 자연배란 주기에 비해 배란일에 맞추어 시도하며, 배란이 불순한 경우에는 생리 3~5일째부터 배란 유도제를 5일간 복용한 후 자궁강내 인공수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신이 되지 않거나 뇌하수체-시상하부 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인 경우에는 과배란 유도 주사를 생리 2~3일째부터 맞으면서 여러 개의 난자를 배란시켜 자궁강내 인공수정 시술을 한다. 자궁강내 인공수정 시술은 보통 4~6회 정도 실시하나 불임 여성의 나이, 불임 원인, 불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횟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주입되는 정액 양은 0.5ml 내외로 아주 소량이며 시술 후 약 10~2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바로 일상생활을 해도 임신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 시술 후 특별한 주의 사항은 없다.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기고

한이준



지난 2월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졸업생들의 뒤돌아 행태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졸업식을 마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벗고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졸업식 때마다 일부 학생들이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대낮에 알몸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몫을 한 듯해 더욱 씁쓸하다. 과거에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눈물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졸업식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경건해야 하는데, 떠나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나 별다른 감동이 없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 정도다. 오늘날 누구나 받는 것이 학교교육인데,

학교 내 강압·폭력 절대 안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고등학교 선배들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선배를 또한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학교교육에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교복을 찢는 까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졸업했으니 더 이상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소비행태가 아닌가 싶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자기가 안 입으면 후배들에게라도 물려주면 될 일이다. 교복값이 비싸다고 학부모들이 나서 공동구매 운동을 벌이는 학교도 많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물려주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자기의 학창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교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멀쩡한 복장을 이물질들 뿌리고 갈기갈기 찢고 있으니, 아무리 풍요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이라지만 물건을 아끼는 정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졸업이 무슨 큰일이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배들이 졸업식 뒤돌아 행태를 빗대 후배들에게 웃을 베포도록 한 것은 분명 하나의 폭력이다. 아무리 졸업을 축하한다지만 추운 날씨에 누군들 야외에서 웃을 벗고 싶겠는가?

선배들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런 강압과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왜 할 웃을 벗는 일을 시켰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 같은 모든 것은 교육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학생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인생의 통과례의 하나인 졸업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견정하게 기념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인성교육을 통해 예절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공동체 사회에서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

시설

정부의 감세정책에 휘청대는 지방재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인해 이에 사용될 복지예산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전국 6대 광역시 중 지방재정이 가장 취약한데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8천 215억 원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무려 4.2배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 가운데 28.8%나 된다. 그러나 금년에 복지예산 재원으로 사용될 부동산교부세 보전액은 250억 원으로, 지난 2008년의 1천249억 원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광주시 전체 예산은 1.8배 증가하는 데 그쳐 전반적으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효

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6개 시도 모두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에 떠넘긴 데 있다. 사회복지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그러나 정부가 소위 '부자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를 고집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에 전가시킨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5년간 '부자세'가 100조 원에 이른다는 것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모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를 다시 끌어안고, 우선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또한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차단할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는 두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 피의자나 전과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광주·전남에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성폭행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는 기소중지자가 60여명에 달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방수배가 내려지더라도 성범죄자들은 재범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데다 범행이 계속될수록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개발 예정지역 역시 성범죄 사각지대다. 재개발 지역에는 빈집이 많아 수배자가 은신하기 쉬운데 CCTV가 설

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7개 재개발 예정지역에 빈집 1천775곳이 방치돼 있으나 CCTV가 전문화 실정이다.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만 하고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길태 사건을 피하기 어렵다.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은 성범죄 피의자 검거와 전과자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재개발 지역에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다양한 성범죄 예방대책이 나왔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등 이미 발표된 예방 시스템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無等鼓

"유물주물하다가 내 이빨 줄 알았지." 영국의 문호 조지 버너드 쇼가 죽기 전에 미리 써 놓은 자신의 묘비명이다. 노벨상과 아카데미상을 모두 받았던 그도 항상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살아가는 다짐이 필요했던 듯 하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동선시(動善時)'란 말이 나온다. 어떤 행동이든 때가 맞아야 빛을 발한다는 뜻이라라.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는 속담도 기회가 왔을 때 붙들라는 경구(警句)다.

때문에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단순하여야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때에 대비해 평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확한 판단하고 시기 적절하게 행동하는 '타이밍 파워(timing power)'가 인생을 바꾼다는 의미다.

강태공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자신의 시절'이 올 때까지 10년 동안 태산처럼 앉아 누사만 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승리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그날까지 칼을 뽑지 않았다.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

타이밍 파워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34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1	여론제작부 2200-679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 1부 2200-612	체 육 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2-4267 >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재검토 필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 수준인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를 위해 손바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취학연령 아닌가 싶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6세, 영국은 5세에 초

오고 졸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26세 이상 28세까지 된다. 직장 구하고 기반 잡고 결혼하려면 서른이 훌쩍 지나버리는 게 요즘 기본 결혼 연령이다. 솔직히 너무 늦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재수라도 하고 여학연수라도 다녀오거나 혹은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면 거기에 1~3년은 더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입학연령을 이제는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게 되면 결혼연령도 낮아지고 출산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 정부 당국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떤 게 더 좋은 방안인지 따져 즉시 재검토해줘야 할 것이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